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읽기

김철수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논문초록

본 논문은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Carlo Collodi)가 쓴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Le avventure di Pinocchio* 1883)을 기독교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한 편의 고전으로서의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통일 직후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교육과 훈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어린이 개인의 자유의 추구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었을 때, 이 작품은 한 편으로는 하나의 단순한 질료의 상태에서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 제페트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혹과 위험을 헤쳐 가는 피노키오의 ‘천로역정’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끝까지 피노키오의 여정을 기다려 오다가 끝내는 상어에게 삼켜지는 죽음의 위기를 피노키오와 함께 겪은 후, 그가 진정한 ‘인간 소년’이 될 때까지 그를 기다려 준 제페트 할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소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카를로 콜로디, 『피노키오의 모험』, 동화, 크로노스, 카이로스, 언약, 구속사

I. 들어가는 말

로렌찌니(Lorenzini)라는 본인의 성 보다는 어머니의 고향 이름을 따서 사용한 예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Carlo Colodi)가 쓴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Le avventure di Pinocchio* 1883)은 애초에 단행본의 형태가 아니었다. 이 작품은 1881년부터 1883년까지 약 3 년에 걸쳐서 『지오날레 페르 이 밤비니』(*Gionale per i bambin*)라는 인기 있는 어린이 잡지에 각각 『어느 꼭두각시의 이야기』(“The Story of a Puppet”)와 『피노키오의 모험』(“The Adventures of Pinocchio”)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시리즈물이었다.

본 작품의 전반부인 1장부터 15장까지가 첫 번째 작품에, 그리고 그 후에 제작된 16장부터 36장까지가 두 번째 작품에 속한다. 콜로디는 당초 첫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장인 제 15장에서 피노키오가 교수형을 당하여 죽게 되는 장면을 끝으로 이야기를 접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인기에 힘입은 편집장이 콜로디에게 간청을 하여 1882년과 1883년 사이에 두 번째 시리즈를 집필하여 꼭두각시 인형인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한다.

제프리 브록(Geoffery Brock)가 번역한 영문판의 서문에서 “진정한 피노키오는 콜로디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 발견되거나 재발견될 수 있다”(ix)고 주장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어린이 도서인 이 책이 성인들도 역시 겨냥하고 있어서 “많은 성인 비평가들이 정신분석, 인류학, 신화, 철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해석”(x)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 작품의 심층적인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08년 밀라노 박람회에서 242종의 이태리어 판본과 325권의 다양한 속편들, 그리고 60 여종의 영문 번역판과 엽서, 달력 혹은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응용제품 등이 선보였다고 주장하며 이 작품의 인기와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다(x-xi).

“An Essay on Pinocchio”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니콜라스 페렐라(Nicolas J. Perella)는 이 작품이 단테(Dante)의『신곡』(*The Divine Comedy*)이나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군주론』(*The Prince*) 외에는 그 인기도에 있어서 필적할 상대가 없다고 극찬하면서(2), 콜로디가 우화와 민담 및 동화 등 다양한 고전과 민속 그리고 대중적 장르에 속하는 문학적, 문화적 전통들을 “빈번하게, 그리고 고의적으로(frequently and deliberately)”(3) 작품 속에 반향 시키고 있음을 주장한다.

소위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¹⁾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운동 기간 동안 그 정치적, 역사적 격변기를 온몸으로 부대끼며 지냈던 콜로디는 기자와 평론가 및 작가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통일이 된 후야 비로소 외국 작품들을 번역하면서 동화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한다(Perella 6). 피노키오 이야기를 연재하기 전 그는 착한 소년 지아네티노와 미누졸로의 삶(the lives of the good little boys Giannettino and Minuzzolo)을 묘사한 작품들로 통일 이후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감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염두에 둔 교육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순응을 조장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성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West 164)으로 여기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본성적 욕망과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본능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꼭두각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순응의 필요와 위반적 자유의 호소를 다루고 있는 작품”(West 166)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정희는 이 작품과 로베르토 베니니(Roberto Benigni)의 영화 <피노키오>를 비교 연구한 논문에서 이 작품이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어린이들의 교육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광범위한 문학적 전통”(84) 속에서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유명종도 “콜로디가 활용한 피카레스크 양식과 다양한 상호텍스트성”(198)으로 인하여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회정치, 철학, 신학 등의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198)고 주장한다. 이처럼 어린이를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다룬 동화로서의 단순한 열개 속에 문학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역사적, 정치적,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인간을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을 논하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 콜로디의 동화『피노키오의 모험』을 기독교의 구속사적 개념에 입각한 다시 읽기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물론 페렐라가 이미 그의 논문에서 콜로디가 “의도적으로 카프카(Kafka)나 존 번연(John Bunyan) 식의 알레고리적 작품을 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3)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자신을 나무 인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를 배반하며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인간이 된 피노키오와 또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 준 제페토(Geppetto) 할아버지의 일생을 통해, 험난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변함없는 일관성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과정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번덕스레 오가는 인간의 모습을 조명해 봄으로써, 세속의 동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II.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구속사

1) 1750년에서 1870년 사이에 일어난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운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9606&cid=40942&categoryId=31787>

성경학자들은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심으로써(기독론) 그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신 일(교회론)과 이 구속의 수단(구속론)에 대한 ‘구속의 이야기’”(Hunter 11. 지동식 200 재인용)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점진적인 자기 계시와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 그 통일성을 유지하신다고 한다. 결국 구속사는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자 절정이며 성취가 되고, 성경 전체에 흠뻑 젖어 있는 모든 사건 본문들에게 유기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인 것이다(정창균 26).

흔히 성경학자들이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는 독일어의 두 단어인 *historie*와 *geschichte*를 예로 든다. 강성구는 *historie*를 “실제로 이러한 역사, 곧 증거가 가능한 객관적 역사”로, *geschichte*를 “일어난 역사에 주관적인 해석이 첨가된 역사”(14)로 정의하고, 지동식은 전자를 “사람이 관찰하며 헤아릴 수 있는 ‘사학적 역사’”라고 정의하고, 후자는 “사람이 관찰하거나 헤아릴 수는 없으며 실지에 있어서는 깊은 데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서의 역사다”(197)라고 정의한다. 요컨대 이러한 역사의 두 가지 개념은 세속의 수평적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크로노스(Kronos)²⁾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기회나 특정한 시간, 또는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이로스(Kairos)³⁾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본 논문의 이론의 기반이 되는 구속사는 각각 후자에 속하는 ‘*geschichte*’나 ‘*Kairos*’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며, 이와 같은 구속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로버트슨(Palmer Robertson)은 이러한 계약을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계약”(11-24)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약의 특성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⁴⁾이고, “세우신 것”⁵⁾이며 “주신 것”⁶⁾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신 7:9)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구속사의 전제라고 소개한 뵈게메렌(Willem A. VanGemeren)은 “이 구속역사적 접근은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와의 상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정경적 결론 위에서 구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68).

성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에덴동산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라고 말씀하셨던 ‘행위 언약’에서 시작되지만, 이 언약은 곧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의해서 위반되고(창 3:1-6), 그 결과로 타락한 인류 위에 죽음이 임하게 된다(고전 15:22).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로 인류 구속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창 3:15)을 천명하신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시대(창 6:18-20, 9:8-17)와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약속되어 왔고(창 15, 17장), 이후 족장들에게 반복되었으며(창 26:2-5, 28:10-22), 출애굽 세대와 광야 제 2세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출 19:1-20:21, 24:1-11, 신 29-30장). 그 언약은 다윗 시대(삼하 7:12-16)를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마 26:26-28, 막 14:22-25, 눅 22:19-20, 고전 11:23-25, 히 7:22, 8:13).⁷⁾

이러한 구속사의 관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원시복음(창 3: 15)을 바탕

2) 크로노스(고대 그리스어: Χρόνος)는 그리스 신화와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이름 자체가 ‘시간’이란 뜻이며 그리스 태초 신중의 하나이다. 티탄인 크로노스(Kρόνος)와는 다른 신이다. <https://ko.wikipedia.org>

3) 카이로스(고대 그리스어: Καῖρος, 라틴 문자전사: Kairos, 라틴어형: Caerus)는 그리스어로 ‘기회(찬스)’를 의미하는 *καῖρος*를 신격화한 남성신이다. <https://ko.wikipedia.org>

4)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수 7:11)

5)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레 26:9)

6)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 두 조상을 낳으니(행 7:8)

7) http://www.abrahampark.com/kor/edu_data/4995

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 등의 단계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들이 이 작품의 큰 골격을 이루는 제페토와 피노키오 그리고 악하거나 선한 다양한 캐릭터들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해야 할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사랑과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엡 4: 24)이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페렐라가 그의 논문의 첫 페이지에 제사(Epigraph)로 사용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⁸⁾은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며 “나무 인형이었을 때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 지금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된 게 얼마나 기쁘지 몰라!”(AP 160)라고 말하며 의기양양 웃고 있는 소년 피노키오에게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III. 크로노스 속의 피노키오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동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언어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화는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언어의 풍요로움과 마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Machura 78)해 줄 뿐만 아니라 “개념의 성장과 언어와 관련된 그의 학습 능력”(Garvie 8)에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성장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Bettelheim 7) 있으며, 또한 상상력과 시아의 확장을 통해 “더욱 전인적인 관점으로 발달”(Wray and Jane 46-47)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콜로디가 활동하던 시대에 동화나 어린이 문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장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스트(West)는 “19세기 이태리에서 아동문학은 하나의 혁신”(166)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당시에는 아동문학이라는 독립적인 장르가 존재하지 않고, 상류계층에게 제공되던 강력한 고전교육과 상대적 빈곤층에게 유행했던 구전으로 전승된 옛날이야기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공유되고 있었다. 거기에 가톨릭의 영향으로 성경 속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나 연극으로 전해져서 아이들의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가 두 독자층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아이들만을 위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확산된 것은 19세기에 통일된 민족 국가의 건설이 우선시되고,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이태리 시민의식의 형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때였다(166).

이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서 탄생한 『피노키오의 모험』은 일단 보카치오(Boccaccio)나 호머(Homer), 혹은 단테 등의 고전 명작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토스카나(Tuscan) 지역의 민속 예술”(Cambon, West 167 재인용)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신화, 성서, 이솝 우화를 비롯한 많은 작품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고(장정희 84), 그 외에도 오비디우스(Ovid)의 변신 (Metamorphosis)이나 아풀레이우스(Lucius Apuleius)의 황금 당나귀 (The Golden Ass),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어 왔다(유영종 198). 또한 이 작품은 장정희의 주장대로 피노키오의 방종을 그 생명력의 원천으로 삼고(88) 작품의 전체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피카레스크식 구조와 요정이나 변신 또는 죽음과 재생 등의 요소들로 인하여 전형적인 동화나 민담의 성격을 다분히 담고 있기도 하다(84).

초창기의 비평가들은 외국에 소개된 콜로디의 작품이 어린이를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강조하느라고 그 작품 속의 기저에 담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 섬세함이나 서사전략 또는 다양한 사회적 풍자 등의 요소들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Perella 2).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피카레스크식 에피소드의 구성 속에서 “중흥무진 모험 여행을 통해 19세기 말 통일 이후 이탈리아의 부패한 시대상을 드러내며

8)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 11)

풍자”(유영중 199)하는 건달 캐릭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피노키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위 ‘악한소설’로 분류되는 피카레스크의 장르적 특성을 이용해서 콜로디는 당시 이탈리아의 공적 영역에 만연하던 불의와 부패 및 무능, 지식과 교육의 무용성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비판이라는 전복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유영중 201). 따라서 옛날이야기나 동화의 전형적인 도입부인 “옛날 옛적에...”(AP 11)로 시작하는 이 작품에서 아동교육의 대상이자 교보재인 피노키오를 제거하면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한 편의 ‘사회고발을 위한 르포르타주’ 문학이 전개되는 것이다.

크로노스 속의 피노키오가 폭로하는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은 크게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당시 이탈리아 서민들의 경제적 현실은 작품의 전반부에 배고픔과 가난의 모티프로 묘사된다.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피노키오는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서랍이며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른 빵이든, 개한테 줄 뼈다귀든, 곰팡이 핀 옥수수 죽이든, 생선 뼈다귀든, 버찌씨든 아무 거라도 씹을 것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AP 16)

이러한 극심한 빈곤과 기아는 “명량한 피노키오도 슬픈 표정으로”(AP 27) 바뀌게 하고, 후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하나 뿐인 외투를 팔아서 사 준 책을 다시 팔아 서커스 구경을 갔던 그를 불쏘시개로 삼아 점심 식사를 하려 했던 사나운 극장 주인으로 하여금 그를 생명의 위기에서 구해 줄 뿐 아니라 아빠에게 전달할 “금화 다섯 닢”(AP 36)을 선물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그 가난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 금화를 노린 고양이와 여우라는 두 강도를 등장하게 하고, 결국에는 재산을 불러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피노키오로 하여금 그들에게 속아 죽음의 위기까지 맞게 한다. 이처럼 작품의 곳곳에 등장하는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무기력과 타락의 담론들은 당시 이탈리아인들이 겪었던 물리적 고난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피노키오가 드러내주는 두 번째 부끄러운 민낯은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현실을 예측하게 하는 장면으로서, 먼저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피노키오를 놓아주고 대신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를 감옥으로 끌고”(AP 12)간 경찰관⁹⁾이나 금화를 도둑맞았다고 신고한 피노키오를 오히려 체포하게 한 “고릴라처럼 생긴 커다란 원숭이”(AP 67-68), 그리고 사면 받은 도둑을 풀어주면서 “존경의 표시로 모자를 벗고 인사를”(AP 69) 한 “바보잡기 도시”(AP 68)의 간수 등은 불합리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사회 정의에 대한 신랄한 풍자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빠뜨릴 수 없는 대상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태도에 대한 불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강도들에게 붙잡혀 떡갈나무에 매달려 죽어가던 피노키오를 진찰한 의사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요정이 피노키오의 침대 주위에 모인 의사들에게 말했다.

“이 불쌍한 꼭두각시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알고 싶어요!”

까마귀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서 피노키오의 맥을 짚었다. 그러고는 코도 만져 보고, 새끼발가락도 만져 보았다. 모두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죽지 않았다면 그건 이 꼭두각시가 영원히 살 거라는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이번에는 올빼미가 말했다.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까마귀 선생과 반대 되는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꼭두각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살아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로 죽었다는 증거겠지요!”(AP 54)

9)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한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

환자의 생사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를 바탕으로 한 처방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근거도 없는 자기주장으로 서로의 의견에 반대만 하는 의사들의 태도 역시 당시의 지식인이나 지도층들의 무능력과 불협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풍자는 상어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간 피노키오가 친구들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피노키오와 뒤엉켜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화가 난 아이들은 뭔가 집어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책 보따리를 풀어 피노키오를 향해 읽기책이며 쓰기책이며 이야기책이며 수학책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노키오가 쯤썩고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바람에 책들은 피노키오의 머리를 지나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다.

물고기들은 책들이 먹이인 줄 알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서로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책 표지나 종이를 조금 물어뜯어 본 물고기들은 입을 푸푸거리며 뱉어 냈다.

“우리 입에는 안 맞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AP 98).

이 장면에 대하여 장정희는 “실질적으로 배고픔을 잠재우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96)하는 책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바다 속을 자유분방하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어린이들의 육체와 의식의 성장의 과정에 전혀 감동과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당시의 교육제도에 대한 작가 자신의 불만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끄러운 민낯에 대한 폭로는 비단 어른들에 의해 조성된 이탈리아의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콜로디는 피노키오라는 천방지축 어린 꼭두각시의 언행과 의식을 통해 당시 이탈리아의 빈민 계층의 성인들에 의해 무책임하게 방임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어른과 아이의 두 계층 모두에게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페렐라는 작품 속 피노키오가 어른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벌을 받는 과정에서 당한 불운(misadventures)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 중 첫 번째는 한 벌 밖에 없는 누더기 외투를 팔아 책을 사 준 제페토 할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를 서커스 극장 입장료와 맞바꾼 결과로 나무에 매달려 거의 죽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아버지를 찾겠다는 효성에 바탕을 두긴 했지만, 다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사람이 되겠노라고 했던 파란 머리 요정과의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과 상어를 보러 바닷가에 갔다가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음날 아침이면 인간 소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정의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파티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호롱불 심지라고 불리는 절친한 친구의 유혹에 빠져 장난감 나라로 갔다가 당나귀가 되어 다시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피노키오의 위기들은 이미 4장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제페토 할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간 뒤 혼자 남게 된 집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말하는 귀뚜라미와의 대화에서 그 전조를 보여준 바가 있다(10-11).

피노키오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일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어. 말해 줄까?”

“그게 뭔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기는 거.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

말하는 귀뚜라미는 여전히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살다간 병원이나 감옥 신세를 지게 될 거야.”

“꺼져, 재수 없는 귀뚜라미야! 자꾸 화나게 하면 넌 끝장이야!”(AP 14)

리소르지멘토 이후 국가의 정체성 회복과 건설적 미래를 위해 이미 교육 목적의 동화를 출판한 바 있는 콜로디는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아직 미완성의 통일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조국의 열악한 인적, 물적 현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풍자하며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은 제페토 할아버지의 집 벽에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는’ 벽난로와 그 위에서 끓고 있는 냄비(AP 9)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람은 아닌’ 피노키오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통일은 갖추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직 요원한 이탈리아의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말하는 나무토막이나 동물들 혹은 요정과 같은 다양한 판타지의 요소와 더불어 재미있는 한 편의 동화로 읽혀져 온 본 작품은 규율과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는 본성과 본능의 요동을 통해 성장해 가는 어린 아이의 “성인식(Initiation)의 힘든 여정을 묘사하는”(이나미 163) 우화로, 저작 당시의 암울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풍자로, 또는 유명종의 표현대로 “포스트휴먼 사이보그의 원형”(205)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문제점을 경고”(209)하는 작품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읽혀져 오고 있다.

이처럼 소위 역사적 시간인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살펴 본 『피노키오의 모험』은 주인공인 피노키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탈리아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풍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초반부터 종결부분까지 묵묵히 그 위상을 지키고 있는 피노키오의 제작자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그 초점을 옮겨본다면, 본 논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논지에 따른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손으로 만든 아들의 삶을 뒤에서 늘 묵묵히 지켜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마침내 그 아들이 사라진 바다로 뛰어들어 결국은 상어의 밥이 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던 아들을 다시 만나 인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과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노키오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의 길에 빛이 되어 준 판타지 속의 여러 캐릭터들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묵상 중의 말씀이나 찬양, 가족이나 친구, 친지와 같은 인간들, 또 때로는 자연 현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 가다가 결국 꼭두각시 인형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소년 피노키오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구속사의 거울에 비춰 본 동화『피노키오의 모험』

1. 창조와 언약, 그리고 배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 2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 16-17)

나무토막이라는 단순 질료가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피노키오의 모험』의 처음 세 장은 공교롭게도 창세기와 그 수가 일치한다. 옛세 동안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당신의 손으로 흙을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것처럼, 피노키오 역시 제작자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다. 작품의 첫 장에는 두 사람의 제작자가 등장하는데, 우연히 습득하게 된 나무토막을 가지고 한 개체의 일부에 불과한 탁자 다리(AP 3)를 만들고자 하는 안토니오(Antonio)와는 달리 제페토 할아버지는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완전한 개체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나무로 꼭두각시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춤도 추고, 칼싸움도 하고, 공중제비도 돌 줄 아는 아주 멋진 꼭두각시 말이야. 그 나무 인형을 데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이라도 벌어들일까 하는데, 내 생각이 어떤가?”(AP 6)

“나무토막을 자르고 깎아 꼭두각시를 만들기 시작”(AP 9)한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인형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로써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고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는 무언의 언약을 제시한 셈이다. 이처럼 하나의 나무토막에 불과한 단순한 질료 속에서 이미 완전한 개체를 예비하고, 거기에 이름까지 붙여주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심히 좋았더라”(창 1: 31)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콜로디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동화에 녹아든 말하는 나무에 대한 켈트나 노르딕의 신화”(West 173)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해 낸 ‘말하는 나무’에서 하나의 인형으로 완성되어가던 피노키오는 손이 만들어지자마자 아빠의 기발을 벗기는가 하면, 다리가 만들어지자마자 알몸의 형태로 달아나기 시작하고, 결국 경찰에게 잡혀 돌아와서 아빠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동네 사람들이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구박하고 폭행할 것을 염려하자 경찰은 그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제페토 할아버지의 손을 벗어나 도망가다가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제페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심을 끌어내게 한 피노키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에덴동산을 돌아다니다 뱀을 만나서 그의 유혹에 빠진 나머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창 3: 3)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행위언약’을 불신하고 거역한 아담과 이브의 모습과 정확하게 겹친다.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과로 자신의 제작자인 제페토를 감옥에 보낸 피노키오는 설상가상으로 집에 돌아온 후에는 자신을 훈계하는 귀뚜라미를 나무망치로 때려서 죽게 하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과 아들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던 농부들(마 21:33-41)의 비유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다. 비록 인형의 모습이지만 의식을 지닌 하나의 완성된 생명체로 존재하는 피노키오가 저지른 이 최초의 살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부당한 후 그 아우를 살해한 가인의 모습과 연결되며, 이것은 곧 최초의 행위언약을 어긴 후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불행한 미래와 연결해 볼 수 있다.

그 후 피노키오는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못된 마을 사람을 만나서 물벼락을 맞고 집에 돌아와 난롯가에서 잠을 자다가 다리를 다 태워버리게 되고,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난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붙여주고 먹을 것을 준다. 그러나 다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공흠을 베풀기 전에 그는 피노키오의 잘못에 대하여는 약간의 응징을 가함으로써 공흠과 자비의 선결조건으로서의 공의로운 태도를 보이게 된다.

피노키오는 배를 채우고 나자 새 다리를 갖고 싶다고 불평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그 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주려고 반나절 동안이나 피노키오가 울며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왜 네 다리를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하니? 또다시 네가 집 나가는 꼴을 보려고?”

피노키오가 훌쩍이며 말했다.

“약속해요. 오늘부터는 말 잘 들을게요.”

“애들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그렇게 말하지.”

“약속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애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다른 아이들이랑 달라요! 난 아이들 중에서 가장 착한 아이예요.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요. 아빠, 약

속할게요. 기술을 배워서 아빠를 기쁘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늙으시면 아빠의 지팡이가 되어 드릴게요.”

얼굴은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AP 24).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피노키오에 대하여 험상궂은 표정과 눈에 가득 고인 눈물로 상징되는 ‘공의와 긍휼의 마음’을 보여준 제페토 할아버지는 다시 그에게 “천재 예술가가 만든 조각품”(AP 24) 같은 다리를 다시 만들어준다. 이러한 제페토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피노키오는 “바로 학교에 갈거예요”(AP 25)라고 말한다. 그러나 알몸을 가리고 사회적인 활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피노키오가 준비한 것은 종이옷과 나무껍질 신발, 그리고 빵 껍질로 된 모자뿐이다. 마치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창 3: 7)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인 무화과의 나뭇잎을 따서 어설프게 몸을 가렸던 것처럼, 피노키오의 차림새는 임시방편적이고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일 뿐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그런데 학교에 가려면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데?”

“책이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책을 어떻게 구한담?”

“그거야 간단하죠. 책방에 가서 사면 돼요.”

“돈은?”

“난 돈 없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도 없어.”

명량한 피노키오도 슬픈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다. 정말로 가난할 땐 누구나 다 가난을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는 수 없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헹겅을 대 누더기가 된 낡은 외투를 걸치고는 집 밖으로 달려 나갔다.

잠시 뒤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책을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나갈 때 입고 있던 외투가 없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불쌍한 노인은 셔츠 차림이었다.

“아빠, 외투는 어디 있어요?”

“팔아버렸지.”

“왜 팔았어요?”

“너무 더워서.”

피노키오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AP 27-28).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의 밖으로 추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드러난 아담과 하와의 알몸을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심으로써 죄인인 인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서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완전하게 해 주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피노키오의 아빠인 제페토 할아버지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누더기 외투를 팔아 나무 인형 아들에게 책을 사 주게 되고, 두 사람은 또 하나의 언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 피노키오가 그것을 지키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페토 할아버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켜지게 된다.

2. 타락: 유혹과 욕망이라는 뱀비우스의 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들이 추방되어 들어간 세상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창 3:8)도 없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욘 1:3)라고 불리던 욘도 시험을 당하며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곳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엡 2: 2) 장소임에 틀림없다. 외형상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집 밖으로 나오게 된 피노키오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아버지와 의 언약을 되새긴다.

“오늘은 학교에서 책 읽는 걸 배울 거야. 내일은 쓰기를 배우고 모래는 셈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런 다음 난 솜씨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제일 처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으로 아빠한테 멋진 천으로 만든 외투를 사 드려야지. 아니, 천으로 만든 외투가 아니라 번쩍거리는 단추에 금이며 은으로 만든 외투를 사 드릴 거야. 불쌍한 우리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빠는 나한테 책을 사 주시느라고 지금 셔츠만 입고 계셔. 이 추운 날씨에 말이야!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야”(AP 27).

그러나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피노키오의 결심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과 그것들을 향한 그의 내재적 욕망으로 인하여 항상 흔들리게 되고, 결국 계속 반복되는 타락과 방황으로 이어져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맞게 된다. 등교 길에 서커스를 선전하는 음악소리에 정신이 팔려 아빠가 사 준 책을 팔게 된 피노키오는 서커스를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자신을 알아보고 반겨주는 꼭두각시 인형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섞이게 된다. 나중에 그는 극장 주인인 허풍선이(Fire-Eater)의 식사를 요리할 땀감이 될 위기에 처하지만, “아빠, 살려 주세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AP 32)라고 울면서 외치다가 주인의 동정을 받게 된다. 그 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신을 대신해서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친구를 위해 용감하게 변호해 주던 피노키오는 그 친구 대신 차라리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의 희생정신에 감동한 주인은 피노키오를 칭찬하며 가난한 아빠인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전해달라며 “금화 다섯 닢”(AP 36)을 쥐어주고 서커스 극장에서 나가게 한다.

피노키오가 극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끈질긴 유혹자로 등장하는 여우와 고양이 앞을 가로막고 유혹하며, 그의 내재된 욕망을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집에 거의 반쯤 왔을 때였다. 갑자기 여우가 걸음을 멈추더니 피노키오에게 말했다.

“네 금화를 불리고 싶지 않니?”

“무슨 말이야?”

“금화 다섯 개를 백 개, 천 개, 이천 개로 만들고 싶지 않냐고?”

“글쎄.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날 어디로 데려갈 건데?”

“얼간이 나라로”(AP 38).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피노키오는 결국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고, 중간에 그를 만류하는 귀뚜라미의 훈령을 만나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듣지만 무시하고 길을 가다가 다시

강도로 위장한 고양이와 여우를 만나 죽음의 위기까지 맞게 된다.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화 다섯 닢을 허 밑에 감춘 피노키오는 그것들을 빼앗으려는 두 강도들에 의해 붙잡혀 커다란 떡갈나무에 매달려 죽어지게 된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사악한 무리의 유혹과 자신 안에 내재된 욕망을 이겨내지 못한 피노키오는 본래 이렇게 죽음으로 그의 생을 끝내야만 했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등장한 “천 년 전부터 이 숲에 사는 마음씨 착한 요정”(AP 52)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피노키오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후 자신을 만나러 제페토 할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가던 피노키오는 다시 고양이와 여우를 만나 끝내 금화를 도둑맞게 되고, 그 일을 신고했다가 “금화 네 닢을 도둑맞은”(AP 69) 죄로 4 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된다. 4 개월 후 왕의 특별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피노키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닭을 잡아먹는 족제비를 잡기 위해 쳐 놓은 덫에 걸려 (AP 73) 농부의 집에서 개 대신 집을 지키게 된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안됐지만 잘 된거야! 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했어. 나쁜 친구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다른 아이들처럼 착한 아이가 됐어야 했는데.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아빠랑 집에 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들판 한가운데서 농부 집을 지키는 개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어쩔 수 없어, 참는 수밖에!”

피노키오는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개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AP 75).

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노키오는 항상 이렇게 반성을 하고난 뒤에는 다시 본능과 욕망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또 다른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유혹과 본능의 변증법적 순환을 따라 반복되는 타락의 행위적 결과는 인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나 본성과 늘 충돌하는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한 패턴이 피노키오에게서도 항상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노키오의 독백은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낭비하고 돼지를 치며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던 중 그마저 여의치 않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눅 15: 17)라고 한탄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탕자의 독백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게 농부의 집을 지키는 개처럼 살던 피노키오는 우연히 닭을 훔치러 온 족제비들을 잡을 수 있도록 농부를 도와준 덕에 개목걸이에서 풀려나 다시 요정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요정의 집에 도착한 피노키오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었던 파란 요정의 집은 없어지고, 대신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대리석 묘비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때, 커다란 충격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던 피노키오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제페토 할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준다. 사흘 전 바닷가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던 비둘기는 그가 “큰 바다를 건너려고 조그만 배를 만들고”(AP 81) 있었으며 “벌써 닢 달째”(AP 81) 피노키오를 찾아 세상을 떠돌고 있었음을 전해준다.

3. 구속의 사랑: 끝없는 기다림

피노키오가 가끔씩 떠오르던 아버지와의 약속과 즐기치게 자신을 쫓아다니던 세상의 유혹, 그리고 도저히 뿌리치고 극복할 수 없던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그의 제작자이자 아버지인 제페토 할아버지는 쉼 없이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피노키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비둘기, 즉 성령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 26)

아버지와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길을 택해 왔던 피노키오 앞에 때마다 나타나서 충고하고 질책하던 귀뚜라미나 파란 머리 요정 등의 캐릭터들은 자유의지를 부여 받은 인간의 타락과 최악 된 행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과 속량을 중보하며 간구하던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노키오는 자신을 찾아 작은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제페토 할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곧 그를 뒤쫓아 물속으로 뛰어든다. 밤새 쏟아지는 비와 천둥 번개 속에서 헤엄치다 역시 큰 파도를 만나 한 섬에 상륙하게 된 피노키오는 우연히 만난 돌고래에게서 자신의 아빠가 상어 밥이 되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부지런한 벌들의 나라”(AP 86)에서 죽은 줄 알았던 파란 머리 요정을 다시 만난 피노키오는 마음씨 착한 진짜 아이가 되어서 “아빠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AP 91)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파란 머리 요정을 “엄마”(AP 91)라고 부르며 새로운 각오를 밝힌다. 사실 페렐라가 “[피노키오]의 이야기에서 주요한 전환점(a major turning point in his story)”⁽¹¹⁾이라고 명명했던 이 시기에 피노키오는 파란 머리 요정에게 “꼭두각시로 사는 게 정말 지겨워요”(AP 90)라고 불평하며 자라서 어른이 될 수 있는 “진짜 사람”(AP 90)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강하게 피력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생각만 해도 몸이 근질거리는”(AP 91)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요정과 약속한 상태였다.

그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던 피노키오는 바닷가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혹시나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을 따라 나섰다가 함께 갔던 일곱 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다시 경찰에게 붙들릴 위기에 처한다.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피노키오를 질투하고, 학교에 가겠다는 그를 꼬여내어 바닷가로 데리고 온 그 일곱 명의 친구들은 성경의 “칠대 죄악(Seven Deadly Sins)¹⁰⁾”(Perella 12)과 연관 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여기서 다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피노키오는 자신을 쫓아오다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경찰견을 구해 주고 자신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어부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나중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어부에 의해 튀김이 될 뻔 했으나, 때마침 음식을 구하러 들어온 경찰견의 도움으로 다시 빠져나가 파란 요정이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에게 파란 요정은 “내일이면 너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란다. 진짜 아이가 되는거야”(AP 113)라고 말하며 피노키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벌일 준비를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피노키오의 약속과 결심은 “장난감 나라(Fun Land)” (AP 116)에 가자고 꼬드기는 “호롱불 심자”(AP 115)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를 따라가면서 다시 물거품이 된다. 영어로 ‘Lampwick’으로 번역된 ‘호롱불 심자’라는 별명은 이탈리아로는 Lucignolo로 표기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로메오(Romeo)”(AP 15)이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피노키오의 소원이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의 순간에 가장 달콤한 이름을 가진 ‘장난감 나라’로 그를 유혹하는 호롱불 심자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대체 자야”(Perella 11)이며, 그동안 피노키오를 위협이나 두려움에 빠뜨리며 유혹했던 다른 유혹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낭만적(romantic)’이라는 의미와 연관되는 로메오라는 이름과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Lucifer)를 연상하게 하는 그의 이탈리아 성은

10) 문학과 예술의 주제와 모티프로 자주 사용되는 기독교의 일곱 가지의 대죄악은 다음과 같다.

① 교만: superbia(라틴어), pride(영어), ② 인색: avaritia(라틴어), greed(영어), ③ 시기(질투): invidia(라틴어), envy(영어), ④ 분노: ira(라틴어), anger(영어), wrath(영어), ⑤ 음욕: luxuria(라틴어), lust(영어), ⑥ 탐욕(탐식): gula(라틴어), gluttony(영어), ⑦ 나태: acedia(라틴어), pigritia(라틴어), sloth(영어) [네이버 지식백과]

이전에 피노키오가 맞서 싸웠던 유혹보다 훨씬 더 물리치기 힘든 적수이다. 페렐라는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칠대 최악이 그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단일한 형상으로 대체되었다”(12)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자들 중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바로 어떤 유혹에도 끝내 자발적으로 넘어가고 마는 피노키오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유혹자의 꾀에 빠져 따라간 장난감 나라에서 당나귀로 변한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 팔려가서 곡예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죽어서 가족이라도 건지려 했던 주인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속에서 물고기들에게 당나귀 가족을 다 물어뜯기고 나서 다시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건져지게 된다. 자신을 잡아 “난로에 넣을 장작으로”(AP 141) 팔겠다고 달려드는 옛 주인을 피해 바다로 뛰어난 피노키오는 다시 자신을 지켜주던 파란 요정을 연상하게 하는 파란 염소가 보는 앞에서 커다란 상어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사실 그 상어의 뱃속에는 약 두 해 전에 피노키오를 찾아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왔다가 침몰했던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아있었고, 피노키오는 그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준 후에 아빠와 함께 재채기 하는 상어의 목구멍을 통해 바다로 나와서, 상어의 뱃속에서 함께 나오게 된 참다랑어의 도움을 받아 육지에 오르게 된다. 자신의 창조자와 함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되어 나온 피노키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 자신을 속였던 고양이와 여우는 “불쌍한 두 병자”(AP 153)가 되어 있었고, 피노키오 자신도 이제 그들에게 속지도 않고 (AP 153), 아빠에게 드릴 우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공부를 하는가 하면 (AP 157), 병에 걸린 파란 머리 요정의 간호를 위해 자신의 옷값을 기꺼이 포기하는 등 (AP 158),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욘 2: 7-9)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려고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삼일 만에 나오게 된 요나의 기도처럼 새로 변화된 피노키오의 몸과 마음은 제페토 할아버지와 파란 머리의 요정과 귀뚜라미 그리고 달팽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신을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아들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를 통해 진짜 어린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결국 “나쁜 아이들이 착한 아이가 되면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고 온 집안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생기거든”이라고 말하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 7)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V. 나가는 말: 구속 그 이후

동화『피노키오의 모험』은 우연히 발견된 의식과 지각을 가진 하나의 나무토막이 자신이 가진 그 사소한 능력을 바탕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행자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가려고 좌충우돌 하다가 온갖 곤경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준 자신의 창조자와 여러 모양의 돕는 손길들 덕택에 진정한 인간의 길에 들어섰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세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프리즘으로 읽었을 때, 이 작품은 통일 직후 혼란기의 이탈리아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며, 당시를 살아가던 어린이와 어른들을 비롯한 대다수 이탈리아 사람들의 가감 없는 삶의 모습이며, 그것을 바라보던 작가의 다각적인 시선의 종합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특정한 때, 즉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프리즘으로 분석했을 때, 이 작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한 줌의 진흙으로부터 빚어져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비추는 거울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나 외재적 유혹과 내재적 욕망의 변증에 빛어낸 결과로 인하여 그 형상을 상실하고 무화과 이파리 그늘 뒤에 숨은 죄

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인 것이다.

한 개의 어린 꼭두각시 인형이 한 사람의 어린이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 작품이 셀 수 없이 다양한 층위의 역사/철학적, 언어/문학적, 사회/문화적 씨줄과 날줄들로 직조되어 있고, 그러한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은 출판 이래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이 작품을 어느 한 단일 범주에 담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바탕 위에서 창조와 언약, 그리고 타락과 구속이라는 구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이 작품을 재구성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 연구된 세속의 프레임에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와 타락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섭리의 경륜, 그리고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죄인 된 인간의 삶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이 덧붙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견상 매우 단순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피노키오의 모험』에는 통일 직후의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바람직한 국민성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모범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중심주의의 전체성과 획일성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 그 모든 제도를 거부하는 어린이의 자유분방함을 수놓음으로써 획일주의와 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의 균형을 애써 잡아놓은 작가의 노력이 수놓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의 현재이자 미래라 할 수 있는 한 어린 아이로서의 피노키오의 잠재성에 대한 콜로디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부적인 환경의 유혹과 내재된 욕망의 사이에서 배반과 회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피노키오의 태도는 한 편으로는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문제적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는 어떠한 규율과 억압 앞에서도 자유로운 천진난만한 개인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보여주는 아빠와의 약속에 대한 의지와 연약한 타자들을 향한 공허의 마음과 정의의 정신 등이 현재보다 훨씬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작가인 콜로디는 이러한 피노키오의 긍정적인 잠재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러한 연구의 시도가 자칫 프루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하게 하는 과도한 재단의 시도로 말미암아 작품과 이론 모두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상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엄청난 잠재력과 그간 진행되어 온 해석의 다양성에 힘입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계된다”(강성구 253)는 말처럼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피노키오의 모습이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질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성구 (2010).『창조와 타락으로 본 구속사』. 서울: 서로사랑.
네이버. 지식백과 [리소르지멘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9606&cid=40942&categoryId=31787>, 2018. 10. 19.
- 위키디피아. <https://ko.wikipedia.org> 2018. 10. 19.
- 유영종 (2015). 「포스트휴먼 시대에 다시 읽는 『피노키오의 모험』. 동화와 번역학회. 『동화와 번역』 제 30집. 195-214.
- 이나미 (2000). 『요나와 피노키오』. 광주: 생활성서사.
- 한국컴퓨터선교회. 인터넷 성경(개역개정). <http://kcm.kr/> 2018. 10. 19.
- 인터넷 구속사 자료. http://www.abrahampark.com/kor/edu_data/4995 2018. 10.19.
- 장정희 (2003).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과 로베르토 베니니의 <피노키오>: 욕망의 방출과 길들이기.」 문학과영상학회.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 83-105
- 정창균 (2008). 「구속사와 성경 인물 설교.」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42. 2008. 22-37.
- 지동식 (1962). 「현대신학과 구속사 개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신학논단』7. 1962. pp. 197-210.
- 네이버 지식검색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 · 자료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23658&categoryId=50768&cid=50762> 2018. 10. 19.
- 콜로디, 카를로 (2017).『피노키오』. 김홍래 옮김. 서울: 시공주니어.
- 팔머, 로벗슨 (2011).『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 뱅크메렌, W. A. (1988).『구원계시의 발전사』. 안병호 · 김의원 옮김. 서울: 성경읽기사.
- Bettelheim, Bruno (1978).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Collodi, Carlo (2009). *Pinocchio*. trans. Rebecca West. New York: New York Review Books.
- Garvie, Edie (1990). *Story as Vehicle: Teaching English to Young Childre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Machura, Ludmila (1984). "Using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from Practice to Principle* ed. Christopher Brumfit et. al. Essex: Longman,
- Perella, Nicolas J.(1986) "An Essay on Pinocchio." *Italica*, vol. 63, no. 1, pp. 1-47.
- Wray David and Jane Medwell (1991). *Literacy and Language in the Primary Years*. London: Routledge.
- Truglio, Maria (2018). *Italian Children's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New York: Routledge.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읽기(김철수 교수)에 대하여

박찬익

(늘기쁜교회 협동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교회진흥원 기획조정팀장)

발제자 김철수 교수는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저자 클로디의 알레고리적 의도성이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넘어 구속사적인 서사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피노키오의 모험]이 보여주는 플롯의 구성이 성경의 구원이야기(창조-타락-구속-완성)와 많은 점에서 유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에 따라 발제자는 “세속의 동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발제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크로노스/히스토리에의 흐름에 따라 피노키오 시점에서 저자의 원 의도를 추적한다. 그 결과 저작 당시 시대(19세기)가 요청하는 이탈리아의 통일 민족 국가 건설과 이에 필요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문제시되고 극복되어야 할 공적 영역에서의 불의, 부패, 무능, 지식과 교육의 무용성과 같은 사회비판과 고발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발제자는 저자가 이탈리아의 미래의 희망이 될 자유분방한 어린 아이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담고 있다고도 분석한다.

그 후에 관점을 제페토 할아버지 시점으로 옮겨 성경 구속사가 보여주는 카이로스/계시히테와 유사한 창조-타락과 무조건적 사랑에 기초한 구속과 완성을 담보하는 언약 모티브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야기 곳곳에서 하나님과 사단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있음을 제시하며 이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마침내 진짜 어린이로 다시 태어나는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킴으로서 [피노키오의 모험] 속에서 구속이야기 플롯을 꼬집어낸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러한 자신의 시도가 적지 않게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를 [피노키오의 모험]이 다양한 역사/철학, 언어/문화,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담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해석을 낳은 작품이라는데서 찾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시도가 “프루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재단이 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다양한 해석의 존재에 힘입어 또 하나의 확장된 해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찬자는 텍스트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한 소감을 밝히려한다.

1. 본 발제는 새로운 시선이 주는 신선함과 감동이 있다. 다층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피노키오의 모험]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이 더해져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발제자의 시도는 수년 사이에 일어났던 인문학 열풍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고찰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여겨진다.
2. 텍스트 해석의 문제는 포스트모던 이후 텍스트 형성 과정과 배경, 저자의 의도를 떠나 텍스트에 대한 독자에게 해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제도와 관행의 틀에 매여

제한되었던 전통적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는 유익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텍스트 생성자의 중요성과 의도를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성경해석의 경우는 특별계시에 의해서만 구속의 이야기가 온전히 이해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3. 성경이 구속사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말미암는다. 특별계시가 없으면 성경도 여러 장르로 이루어진 고전 컬렉션에 다름없다. 조금 더 인정해줘도 자신의 구원과 관계없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 불과하다. 일반계시를 통해 창조주에 대해서 알고, 인정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분이 “유혹과 본능의 변증법적 순환고리에 매여 있는 죄인”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래 참으사 친히 십자가에서 피흘려 죄의 저주와 값을 다 치루면서까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특별계시에 의해서다.
4. 성경 텍스트는 특별계시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아멘으로 검증하고 받아들이면서 확증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의 산물이자,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해석되고 확인되어지는 창조주의 구속이야기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각자 얻은 깨달음은 공동체성 안에서 수용될 때 공적인 해석의 지위를 얻는다. 성경 해석과정에서 저자의 의도나 배경, 성경 형성과정과 장르적 특성 나아가 성령의 조명하심은 여전히 중요한 척도이다. 본문이 증거하는, 다시 말해 본문의 주인되신 성령이 증거하는 해석(text-proof)과 메시지가 유효하다. 그 메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며 통일성있게 역사한다.
5. [피노키오의 모험]이 일반계시의 영역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특별계시에 해당하는 구속이야기의 유비를 찾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물론 감탄을 자아내는 발견일 수 있겠다. 반대로 비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해석을 수긍할까? 흔쾌히 받아들일까? 이 지점에서 발제자는 “어려움과 한계”를 인식했다. 일반계시의 영역에서 과도하게 구속의 이야기를 발견하려할 때, 증거본문(proof-text)식 해석에 빠질 우려는 상존한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성경 해석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계시 영역에서도 증거-본문식 해석이 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편협한 근본주의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비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사실 작금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편협한 근본주의적 성향은 이런 염려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6. 다행히 발제자는 전제의 취약함을 극복하고자하는 탄탄한 논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구속사에 대한 상당한 신학적 이해와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층들을 균형있게 연결시키면서 논찬자의 염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키고 있다. 천재작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대해 돌속의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돌 속에 있는** 사자의 형상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사자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조각작업이라는 것이다. 돌속에 갇혀 있는 사자를 알아보는 안목처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다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만큼 만..
7.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발제자가 주장을 전개하면서 종종 전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논증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형식적인 겸양이라면 모르겠지만, 설득력있는 논증이라는 확신을 주려면 전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논거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한계의 범주 안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이다.